

“길 위 부처님 발걸음 계승해 화엄세계 구현할 것”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나선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들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에서 펼쳐진 ‘화엄음악제’에 함께하며 긴 여정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화엄문화축제 2021’의 일환으로 10월3일 열린 화엄음악제를 봉행했다. 음악제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한 대중들을 응원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천년고찰 화엄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선사하고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이 더욱 굳건해지길 발원했다.

화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특별무대를 비롯해 화엄사 경내에서 진행된 화엄음악제는 법고시연에 이은 다중으로 시작됐다.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 보제루, 국보 제301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에서는 LED 조명을 이용해 만들어진 동영상과 환상적인 미디어 파사드의 불빛 아래 아름다운 선율을 더하며 장엄한 무대를 만들어 냈다. 콰르텟 코아모러스(Quartet Coamorous) 인트로에 이어 여성타악그룹 도도의 퓨전타악, 팝페라 그룹 아미의 흥성중창, 가수 소찬휘의 대중가요, 국악인 박정선 명창의 소리와 남도민요,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 등이 펼쳐졌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서는 홀로아리랑과 LED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화엄사가 불국토임을 선포하며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 길 위에 서다라는 화엄음악제의 주제는 2600년 전 길에서 나서서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10월3일 ‘화엄문화축제 2021’의 일환으로 화엄음악제를 봉행했다. 다양한 공연들이 순례단의 피로를 씻어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 한 화엄사 ‘화엄음악제’

10월3일 LED조명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로 장엄

길에서 진리를 전하다 길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원력을 계승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함과 동시에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로 이어지는 삼보사찰을 순례하고 있는 천리순례단의 걸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423km를 걸으며 불교중흥의 원력을 굳건히 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화엄사를 방문해 더욱 기쁘다”며 “화엄음악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

시지를 선사하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화엄(華嚴)’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 도감 호산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지리산의 품 안에서 삼보를 외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꽃을 피우기 위해 다시 한 번 길 위에 서고자 한다”며 “길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의 길을 따라 오직 정법 포교의 길을 가겠다”고 발원했다. 이어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들을 수행의 화두로 삼아 한없이 탁마하고 쇄신하며 정진하겠다”며

“병마를 이기는 약이 되고 아픔을 몰아내는 신장이 되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호산 스님은 또 “상월선원에서 시작되어 삼보사찰 순례로 이어지는 천리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원융무애한 화엄세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내일도 길 없는 길 위에 다시 서겠다”며 “이제 지리산하에 화엄세상의 꽃이 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공연에 앞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선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원력과 정진 상징 장군죽비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에게 전하며 화엄사의 순례단 외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용훈 기자 boor13@beopbo.com

“남은 임기 동안 불교중흥 위해 노력”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순례서 회장으로서 자신감 얻어

‘불자네트워크’ 앱도 준비 완료

불교성전 보급에도 진력할 것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조계종도로서 종단을 외호하고 종단 정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신도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임했기에 대면회의금지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돌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만료까지 3년여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중앙신도회가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삼보사찰 천리순례 과정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순례 일정에 얼굴을 다소 조예했지만 눈빛만은炯炯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65년 역사상 첫 교구신도회장 출신인 주윤식 회장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0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제가불자’들의 원력을 결집해 불교진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그는 “1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봤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도회를 별탈 없이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될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기피 덕분”이라고 운을 뗐다.

주 회장은 취임 직후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했다. 하루 평균 25km 이상 걷는 순례는 그에게 육체적인 힘들을 주었지만 동시에 회장으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해야할지에 대한 계획도 명료해졌다. 그는 “21일간 매일 걷으며 마주한 육체적 고통, 추운 날씨, 새벽이슬 등으로 힘들었으나 중앙신도회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회주 자승 스님으로부터 ‘사부대중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불교중흥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아 그동안 생각해왔던 ‘제가불자’의 본분에 대한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큰 법당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최초로 온라인 언택트로 진행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성료한 것을 보고 이에 대해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108개 사찰의 불자들이 실시간으로 동참했고 아울러 유

튜브 중계로 쌍방소통하며 단체로 ‘금강경’을 독송했다”며 “우리 불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법당 안에서 일심으로 뭉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와 함께 제27대 집행부 핵심공약 사업인 ‘불자역량결집 정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불자네트워크’ 앱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한 주 회장은 “IT가 강조되는 4차 산업시대, 디지털을 이용해 전국 불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혜택을 주고받음으로 불자라는 자부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불자네트워크’ 앱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 불자들의 정보가 지역·직종별로 세분화 돼 담긴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조계종 사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불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메신저 기능까지 탑재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 2월, 2년여의 노력 끝에 발간된 불교성전 보급 불사에도 열심이다. 5월27일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도반HIC와 불교성전 보급양행연합회를 체결했으며 주 회장은 천리순례가 끝나는 대로 각 교구를 순회하며 불교성전 보급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주 회장은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이 아닌 부처님의 말씀이 오롯이 담긴 불법”이라며 “성전 보급 자체가 법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며 불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주 회장은 “불자들이 깨어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마리의 깨어있는 힘이 약화되면 모이면 집도 짓고 무거운 물건도 옮기는 등 협력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신도들이 원력을 결집해 종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불자들의 힘을 합하면 한국불교의 중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회장은 “앞으로도 제가불자들의 역량을 모아 불교진흥에 앞장설 것”이라며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앙신도회장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환히 웃었다.

구태=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지리산 자락서 펼쳐진 음악한마당

10월2일 사성암 주차장에서

타악기·판소리·춤 등 공연

사성암(주지 우석 스님)은 10월2일 사성암 주차장에서 ‘길 위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사성암 음악회를 진행했다.

먼저 법고·태평소 연주가 시작됐다. 이어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창작한 노래와 타악기 연주, 지리산과 부처님 이야기에 삼보사찰 순례단 이야기를 더한 판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길을 떠날 때와 광야길 위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춤과 노래는 순례단의 피로를 녹였다.

“천리순례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헤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



다”고 말한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은 “21일 순례기간 동안 약사여래 특별기도를 시작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원만하게 회향하기를 기원하겠다”며 앞면에는 사성암 원불 약사여래 부처님이, 뒷면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새겨진 옥돌을 순례단 전원에게 전달했다.

신용훈 기자 boor13@beop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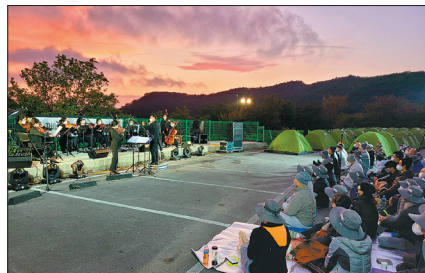
클래식 선율,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응원하다

보로딘오케스트라 ‘노을음악회’

10월4일 지리산 시암재서 공연

저녁노을 곱게 물든 지리산 자락을 배경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동참대중을 응원하는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졌다.

12인으로 구성된 보로딘심포니오케스트라가 10월4일 천리순례 숙영지인 지리산 시암재를 찾아 ‘현악 4중주 노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조운숙 단장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보로딘오케스트라는 이날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K525 ‘한 밤의 작은 소아곡’,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등 다채로운 곡들을 순례단에게 선사했다.

한편 노을음악회는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가 기획하고 마련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한국불교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제3회 국립망향의 동산 합동위령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의 영령들이 안치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그들의 안식과 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제를 통해 국권 상실의 아픔을 교훈삼아 망국의 한을 자각하며 국가의 소중함을 고취하고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후 2시~4시

위령탑 전방 광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72-8

주최 한국불교태고종세종충남교구

주관 (사)충남불교문화진흥원 문의 010. 9128. 7491



충남총무원장 청공스님